

제72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3일)

조선시대 초상화 제작

권혁산, 201호 서화실 18:00~18:30

특정 사람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초상화肖像畵'는 근래에 만들어진 단어로, 옛 문헌에서는 '진眞', '영影', '상像', '진영眞影', '사진寫眞', '화상畵像', '영정影幀' 등으로 지칭하였습니다.

유교를 실천적 지도 이념으로 표방했던 조선왕조시대에는 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 뿐 만 아니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그려주는 '공신상功臣像', 사당 및 서원에 모시고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그려진 '사대부상士大夫像', 승려를 그린 '승상僧像' 등의 수많은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대부분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왕이나 왕족, 높은 지위에 있었던 양반들의 초상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초상화를 제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을 직접보고 그리면 '도사圖寫',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베껴서 다시 그리면 '모사模寫', 주인공이 죽었을 경우 주변의 인물들이 기억해서 그리면 '추사追寫'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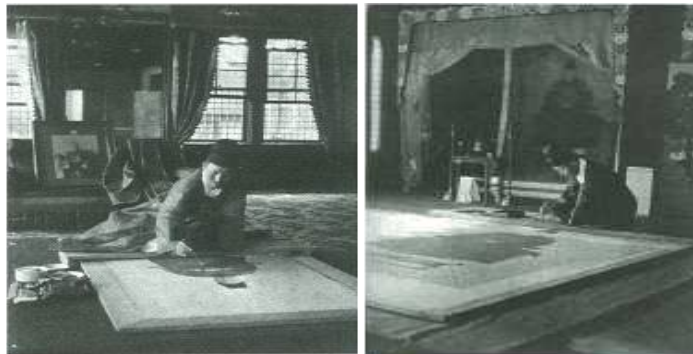


그림 1. 세조어진을 그리는 김은호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과정이나 사용된 재료 등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진관련 의궤에는 왕의 초상화 즉 어진을 그리는 모든 과정과 재료를 의궤에 기록하였고, 공신도감의궤에서는 공신 전반에 관한 기록을 남기면서 공신상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재료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①유지油紙 위의 유탄柳炭으로 스케치, ②먹선(墨線)으로 스케치, ③유지油紙 위의 뒷면 배채背彩, ④유지초본 마무리, ⑤유지초본 위에 비단을 올려놓고 먹선 그리기, ⑥먹선 마무리, ⑦비단 뒷면 배채背彩, ⑧앞면에서 비단 채색, 묘사 마무리

철로 만든 부처

양수미, 301호 불교조각실 18:00~18:30

‘깨달은 자’, 부처의 모습을 담은 불상은 오랫동안 불교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상은 금,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구리나 돌, 나무로 만드는 경우에도 형태를 완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도금을 하거나 금박을 입혀 부처의 성인聖人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었습니다.

불상의 재료 가운데에는 ‘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통일신라 9세기 이후입니다. 철은 녹는점이 높고 쉽게 굳어지는 성질 때문에 불상을 만드는데 쓰기에는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동에 비해서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통일신라 후기부터 불상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불은 통일신라 9세기~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예는 49점 정도다. 강원도,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황해도 등 전국 각지에서 철불이 제작되었는데, 통일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과 함께 구산선문九山禪門에 속하는 사찰들의 주불로도 많이 봉안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불인 경기도 광주 하사창동 불상(그림 1)과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국사國師였던 탄문(坦文, 900~975)이 참여해서 만든 보원사普願寺 터 철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그림 2). 이들은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상으로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새로운 고려의 기풍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짙은 검은색의 철바탕뿐이지만 제작 당시에는 금빛으로 빛나며 보는 이들에게 압도적인 경외감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다면 불교조각실에서 거대한 신성성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1. 철제여래좌상, 고려 10세기, 철, 높이281cm, 경기도 광주 하사창동 출토, 보물, 덕수2748



그림 2. 철제여래좌상, 고려 10세기, 철, 높이 259cm, 서산 보원사 터 출토, 본관5191

제72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3일)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

정민영,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가 지난 5월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십장생도 병풍’을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다채로운 체험물로 풀어냈습니다.

십장생은 장수를 상징하는 열 가지 자연물로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바위, 불로초(영지버섯), 학, 거북이, 사슴을 가리킵니다. 옛 사람들은 오래 살거나 변치 않는다고 여긴 자연물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십장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시는 십장생 중 하나인 사슴이 화자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친구처럼 십장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안녕? 나는 사슴이야. 옛날 사람들은 나를 신선이 타고 다니는 귀한 동물로 여겼어. 지금부터 내가 십장생을 소개해줄게. 십장생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

사슴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십장생을 이루는 열 가지 자연물의 전통적·생태적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사슴을 따라 십장생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그림 1. 전시 포스터



그림 2. 특별전시실 모습